

각국통화로 본 국제 원유가격

石油거래의 기준통화인 **美달러**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몇년동안의 국제原油가격의 등락폭은 대단히 컸다. 그러나 달러貨의 환율 변동으로 석유 수입국 통화로 환산해 보면 등락폭은 더욱 놀라운 수치로 변하고 있다.

현재 국제원유 거래에서 가격은 **美달러**로 표시된다. 따라서 달러화의 환율변동은 필연적으로 순수 油價수준과 모든 石油수출입 국가들의 실질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 12월부터 85년 3월까지 달러貨의 평균 환율은 58.3%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국제原油가격이 비록 1980년 11월 스파트시장에서 최고 배럴당 43달러에서 29달러(이는 경상 달러貨기준 32.6%, 80년 불변가격으로는 47.2% 하락)로 떨어졌어도 原油 및 제품의 순수입국 통화로 환산한 평균가격 하락폭은 전보다 항상 훨씬 작았다. 1984년에는 심지어 오르기까지 했다.〈표-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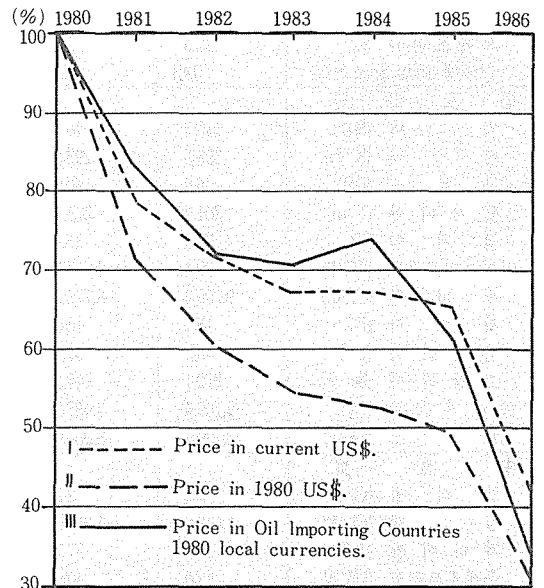
더구나 세계최대 石油수입시장이며 原油 및 석유제품 수입량이 전세계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西유럽에 있어서 1980년 자국통화 기준으로 본 수입원유의 평균가격은 1983년초부터 이미 상승했고, 1984년말에는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당시 그것은 美國보다 67.4%가 높았다.〈표-3 참조〉. 그 결과 달러貨의 가치하락의 영향으로 세계석유수요 자극은 크게 약화되었고, 高コスト 石油생산과 에너지절약 및 석유대체가 활발해졌다.

그후 1985년 3월 이후부터 달러貨의 평균 환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1986년말에는 환율은 85년 3월 수준 대비 27.6%가 떨어졌다. 그리하여 石油 수입국 자국통화기

준 가격하락폭이 달러화로 환산한 그것보다 크게 되었고, 그들간 갭이 좁혀졌다. 1986년말 현재 실제 세계 石油가격은 절정기였던 1980년 11월보다 66.6% 낮은 수준이다.

1987년에 접어들어 달러貨는 더욱 가치가 하락, 동년말 이의 대 日本 円貨, 西獨 마르크화, 파운드화, 프랑화

〈表-1〉 통화별 세계原油가격 추이



INDEX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I	100	79.1	72.1	67.4	67.4	65.1	41.9
II	100	71.9	60.8	54.8	52.7	49.0	31.1
III	100	83.1	72.6	70.9	74.2	61.4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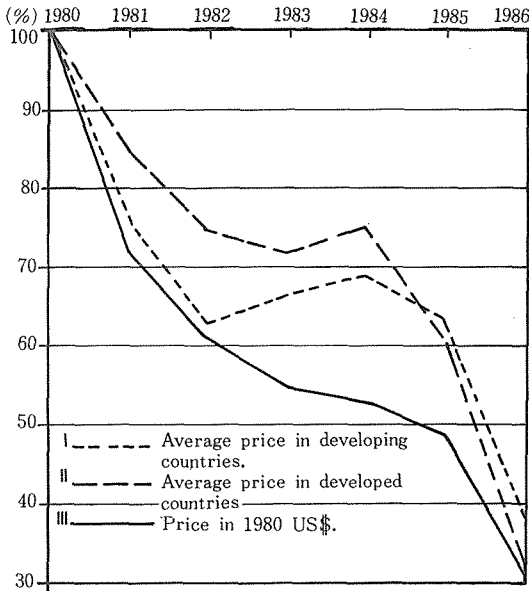
세계原油가격 추이

(단위: \$ / B, 각국통화 / B)

달러화 표시가격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43.0	34.0	31.0	29.0	29.0	28.0	18.0
北 美 國	43.0	30.9	26.2	23.6	22.7	21.1	13.4
캐 나 다	51.2	36.1	29.6	26.8	27.5	26.9	16.5
西 欧 諸 國							
오스트리아 (A sch)	593.4	474.0	453.4	474.1	514.5	378.6	191.0
벨기에 (B fr)	1,355.4	1,208.5	1,204.1	1,247.0	1,341.1	994.4	510.1
덴마크 (D kr)	258.9	222.1	203.8	211.9	228.6	169.8	85.6
핀란드 (F mk)	165.1	132.7	129.8	123.2	130.6	99.7	54.9
프랑스 (F fr)	194.4	171.5	150.1	168.8	181.7	132.1	71.1
그리스 (Dr)	2,001.2	1,599.5	1,339.7	1,460.6	1,612.3	1,432.6	745.8
西 獨 (DM)	84.3	80.6	65.1	67.4	76.6	56.7	29.1
아일랜드 (£ Ir)	22.8	17.4	15.3	15.8	16.9	12.4	6.9
이탈리아 (Lire)	40,011.5	35,051.6	28,910.8	29,091.4	31,322.9	23,869.0	11,959.8
네덜란드 (Guild)	91.6	78.3	70.9	75.2	85.0	63.0	32.0
포르투갈 (esc's)	2,280.7	1,735.4	1,749.6	1,804.1	1,916.1	1,472.4	807.8
스페인 (ptas)	3,407.8	2,892.7	2,811.3	2,924.3	2,966.7	2,353.4	1,206.1
스웨덴 (S kr)	187.9	173.4	179.5	168.7	175.2	135.8	75.8
스위스 (S fr)	75.7	57.5	44.0	53.9	62.2	46.7	23.5
터키 (LT)	3,876.5	3,487.2	2,918.7	3,059.4	3,165.5	2,684.5	1,363.4
英 國 (£)	18.1	15.8	15.6	15.4	18.3	13.6	8.2
日 本 (Yen)	8,729.0	7,143.7	6,720.5	6,105.0	6,437.8	4,873.3	2,477.9
오세아니아							
호주 (\$ A)	36.6	27.6	25.9	23.3	24.7	26.8	16.0
뉴질랜드 (NZ \$)	44.7	35.7	31.7	30.8	38.0	30.5	16.2
남아프리카 (R)	32.3	28.6	24.1	22.9	32.8	30.5	16.2
이스라엘 (new Sheqalim)	0.43	2.33	1.55	0.16	0.57	0.14	0.07
아프리카							
가나 (N¢)	118.3	46.7	27.1	121.4	178.6	173.3	125.7
케냐 (K sh)	325.5	293.2	277.5	255.9	263.9	238.1	145.0
모로코 (DH)	136.2	160.0	146.0	164.5	181.3	159.6	59.3
탄자니아 (T sn)	351.7	225.2	183.2	157.1	165.0	140.6	176.5
잠비아 (K)	34.4	26.2	21.5	27.0	31.3	49.4	53.1
아이보리코스트 (CFAF)	9,709.4	9,067.1	8,972.5	9,621.6	10,617.1	7,846.9	4,182.5
세네갈 (CFAF)	9,709.4	8,775.6	7,957.1	8,217.2	8,606.7	5,861.2	3,078.7
튀니지 (D)	18.1	16.0	14.5	15.0	16.6	13.0	8.8
리베리아 (L \$)	43.0	31.6	26.6	24.6	24.4	24.1	14.2
소말리아 (So sh)	270.1	148.3	264.2	213.9	142.5	172.5	176.4
마다가스카르 (FMG)	9,709.4	7,487.8	6,627.3	6,780.4	8,068.7	6,797.3	4,700.3
토고 (CFAF)	8,709.4	8,260.0	8,024.4	8,733.1	10,363.9	7,389.5	4,155.6
中南美							
브라질 (G \$)	3.0	2.2	1.4	1.8	2.0	1.8	1.1
칠레 (Ch \$)	1,672.0	1,010.5	1,523.6	1,579.6	1,642.7	1,782.8	1,113.7
자미카 (J \$)	76.5	57.7	44.8	66.1	75.8	65.8	38.6
푸에르토리코 (US \$)	43.0	30.9	26.2	23.6	22.7	21.1	13.4
우루과이 (NUr \$)	431.3	304.7	584.1	462.2	472.7	424.2	274.1
버진아일랜드 (US \$)	43.0	30.9	26.2	23.6	22.7	21.1	13.4
바하마 (B \$)	43.0	31.2	25.9	23.4	22.3	20.6	12.4
트리니다드토바고 (TT \$)	103.2	73.1	56.1	45.5	39.8	54.3	32.8
아시아							
인도 (I. Rs)	341.0	274.4	234.3	213.3	239.4	211.0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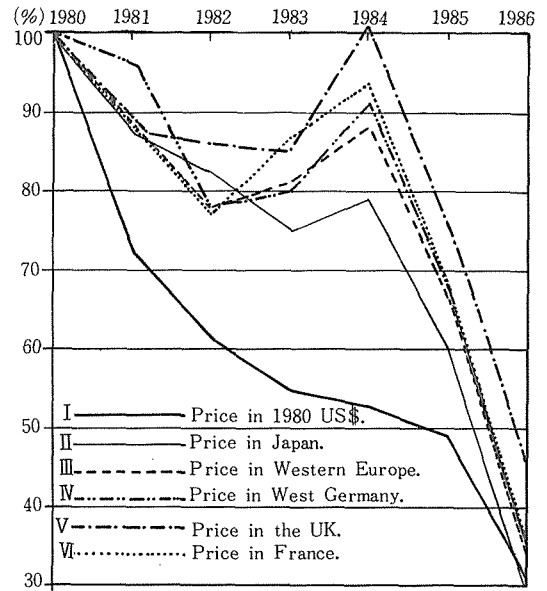
필리핀 (P)	326.8	247.5	222.6	240.4	235.7	207.5	105.6
한국 (W)	28,376.0	21,151.9	17,545.7	17,101.6	17,362.5	17,478.7	10,730.1
싱가포르 (S \$)	89.9	63.1	57.5	53.7	54.4	50.5	33.9
泰國 (B)	887.1	696.2	594.2	543.8	634.5	582.1	360.7
파키스탄 (P. Re)	425.7	299.2	320.5	293.6	319.5	309.7	208.3
스리랑카 (S Rs)	774.0	590.8	493.2	445.6	427.9	419.0	266.2
요르단 (J D)	13.3	9.8	8.5	8.7	9.1	7.9	4.7

〈表-2〉 국가군별 평균原油 도입가격 추이



INDEX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I	100	75.2	62.7	66.2	68.9	63.0	39.2
II	100	84.4	74.3	71.6	75.0	61.1	33.9
III	100	71.9	60.8	54.8	52.7	49.0	31.1

〈表-3〉 日本 및 西유럽의 평균原油도입가격 추이



INDEX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I	100	71.9	60.8	54.8	53.7	49.0	31.1
II	100	87.8	82.6	75.0	79.1	60.0	30.5
III	100	88.6	77.8	81.1	88.2	66.5	34.9
IV	100	95.7	77.3	80.0	90.9	67.4	34.5
V	100	87.3	86.0	85.0	101.2	75.0	45.5
VI	100	88.2	77.2	86.9	93.5	68.0	36.1

환율은 1년전보다 각각 23.3%, 18.5%, 21.8% 및 17.7% 떨어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1986년말 原油 1배럴당 18달러 가격은 위 4개국에서 같은 비율만큼 더 떨어졌다.

전후 처음 25년동안의 低油價 현상은 石油수요를 크게 증가시켰고, 세계 에너지소비구조를 석탄에서 石油로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70년대와 80년대초에 걸쳐 油價의 대폭상승은 石油수요를 침체국면에 몰아넣어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현상을 빚어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초는 거의 세계 전체가 油價폭등이 에너

지 수요공급에 미친 영향을 무시했고, 그에 따른 石油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와같은 경험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低油價 현상이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미래의 수요공급, 油價등의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피트를리엄 이코노미스트〉